

# 숫자로 본 대한민국 (1) 2018년 추계인구

- ... 현대사회처럼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시기에 통계는 단순한 숫자놀음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빠
- ... 르게 바뀌어 가는 사회의 모습과, 함께 변화하는 각종 지표들의 변동 상황을 짚어보고 앞으로 닥칠 미
- ... 래를 예측하는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통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다양한 분석틀을 이용해
- ... 산출하는 통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여러 변수들을 사전에 파악, 검토하는 잣대가 된다. 이러한 '예측가
- ... 능성'은 국가 정책은 물론 경제, 사회 등 분야의 명확한 방향성을 정립하는 기준이다. 숫자 속에 담긴
- ... 달라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과 내일을 살펴보자.

## 2018년 대한민국 추계인구 : 5163만525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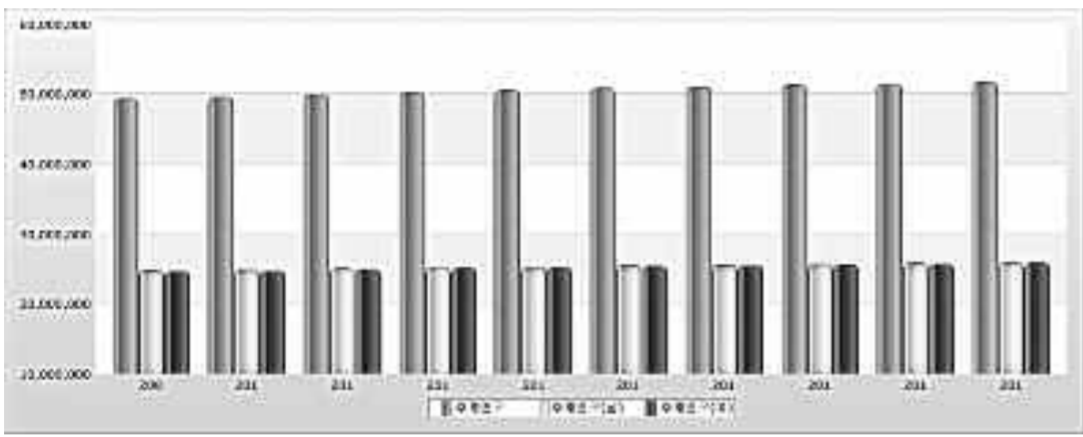
추계인구란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수 추계를 내고 있다. 를 기반으로 출생과 사망, 국제이동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등 인구변동요인을 반영해 추정된 인 2018년 우리나라의 추계인구는 구수다.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작 5163만5256명이다. 이는 5144만 성하며, 코호트요인법을 이용해 인구 6201명이었던 지난해 추계인구 대

비 19만여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 분 류에서는 남자가 2588만1143명, 여자는 2575만4113명으로 각각 예 상된다.

추계인구 수는 지난 2012년 5000 만명을 넘은 이후 3년 만인 2015년 5100만명 선을 넘어섰다.

조정훈 기자

### 최근 10년간 추계인구 변동상황



출처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 지난해 신용대출 21조원 늘어 '사상 최대'

### 은행 가계대출 증가세 '추춤'하는 사이 신용대출 '경쟁'

지난해 가계의 신용대출 증가폭이 사상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덕분에 가계 빚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신용대출이 증가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66조8000 억원으로 전년비 58조8000억원 늘었다. 2015년과 2016년의 연중 증가액이 78조2000억원과 68조8000억원 이었음을 감안하면 증가세는 한풀 꺾인 것이다.

주택담보대출은 55조8000억원이 늘었던 전년보다 18조7000억원이 줄 어든 37조1000억원이 증가하며 상승 세가 한풀 꺾였다.

반면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지난 해 21조6000억원이 늘어나면서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는 이전까지 최고치던 2016년 12조9000억원을 두 배 가가 이 경신한 기록이다.

이에 대해 한은은 케이뱅크와 카카 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잇따라 출범하면서 대출 상승세를 이끈 것으 로 해석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한 정부 정책에 따라 대출 수요가 신용대 출로 쏠리는 풍선효과가 생겼다는 분석도 내놨다.

한은 관계자는 "이런 추세는 계속될 지는 지켜봐야 하지만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정부 규제 대책들이 있기 때문 에 대출 수요가 크게 늘지는 어려울 것"이라며 "당분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 작년 보호예수 상장주식 전년 대비 3.4% 감소

한국에탁결제원은 지난해 보호예수한 상장 주식이 31억6877만3000주로 전년 대비 3.4%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보호예수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 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 자가 있을 경우 일반 투자자들을 보호하 고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보호예수량은 7억7124만7000주로 전 년 대비 14.1% 줄었다. 특히 최대주주 사 유가 71.9%나 떨어지면서 전체 보호예 수량이 감소했다.

반면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전년보다 0.7% 증가했다. 최대주주 사유가 34% 감 소했지만, 합병 사유는 55.5%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급등하는 강남 집값에 칼 빼든 정부

## 업다운계약 등 2만4000건 행정조치...경고메시지 내놔

심상치않은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가 다양한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 며 집값 안정화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서울 강남 집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 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초 서울 강남의 재건축단지 아파트값은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높 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심상치 않은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발표 한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 등 집 중조사, 신규분양주택 조사 등을 통해 적발한 허위신고 등 167건에 대해 과태 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판매증여 등 이 의심되는 141건은 국세청에, 불법전 매 등이 의심되는 사항 1136건은 경찰 청에 각각 통보하는 등 총 2만4365건, 7만2407명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향후 불거지는 불법경쟁위에 대해 강 경하게 대응하겠다는 경고메시지로 해 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9월 26일 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 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국토부·경찰 청·국세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 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실 거래 신고서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조사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 상으로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에 신고 된 주택매매건 중 9억원 이상의 고가주 택, 30세 미만의 저연령, 단지·다수 거 래 건 등에 집중했다. 이를 통해 허위신 고 등이 의심되는 1191건(4058명)에 대해서는 소명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이번 조사는 자금조달계획서를 활용 해 거래대금 증빙자료와 자금조달내역, 거래대금 지출내역, 거래 전후의 사실관 계 등을 밝히는 데 집중됐다. 소명 내용 이 불충분하거나 업다운 계약 등 허위신 고, 불법전매, 판매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 추가소 명 절차와 출석조사 등도 실시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만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판매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기 타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 동으로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꾸려 실 거래 신고서류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한 바 있다.

국토부 측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 무화를 전후로 강남 4구의 아파트 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 저연령·다수·단지거래 등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 자금조달계획서 의무화가 사전적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다.

국토부는 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하위신 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8·2대책 이 후 총 2만2852건(7만614명, 월 평균 3265건)의 업다운계약 등 의심 건을 지 자체에 통보·정밀조사토록 하고,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 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1799명)에 대 해서는 국세청에 별도 통보·조치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 및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한 불법행위 도 조사해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을 통 해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 경찰청에 수 사의뢰 및 통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사법경찰 지정 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청약통장 거래·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 건송치 등이 가능해진다"면서 "8·2대 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진 만큼 광범위하 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 다.

조정훈 기자 jgh@

### 김동연 부총리

## "1월부터 모든 과열지역 무기 단속"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관한 경제현안간담회를 열고, "1월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반을 즉시 가동해 무기한·모든 과열지역 대상·최고 수준 강도의 단속을 실시

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강남 등 서울 특정지역의 재건축과 고가아파트를 중심으로 과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주택 공급물량과 전월세 시장 안정세 등을 감안할 때 서울 특정지역에서 나타나는 주택가격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총리는 투기수요 근절과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 등 3대 원칙에 따라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 2017년 12월 전세자금대출 평균금리 3.04%

지난 2017년 12월 전세자금대출의 평균금리가 3.04%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 대비 0.08%p 상승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9일 공사 보증 은행인 전세자금대출의 가장 평균금리가 3.04%로 전월 대비 0.08%p 올랐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취급하는 기관 중 가장 평균금리가 가장 낮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2.96%였다. KEB하나은행이 2.98%로 뒤를 이었고, 우리은행은 3.01%를 기록했다.

전세자금보증은 개인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실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에 대해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중 16개 은행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다자녀·신혼부부·저소득자·다문화·장애인·국가유공자·의사상자·한부모·조손가족 등 우대 가구에 해당하거나 금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조정훈 기자

## 모든 카드사 포인트 현금화 가능해진다

### 금융감독원,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 개정 계획

앞으로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전월실적은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도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약관'을 개정할 계획 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의 금융감독 3대 혁신방안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현금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눈에 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4월 금융당국은 카드 포인트 사용비를 제한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포인트 사용의 효용 및 편의를 높여야 한다는 소비자들의 요구가 계속돼 왔다.

이에 금감원은 소비자들이 카드사 앱을 통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한 뒤 자동입출금기(ATM)에서 출금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단, 비은행계 카드는 카드대금 출금계좌에 현금을 입금 처리하도록 했다. 1만 포인트 이하의 자투리 포인트는 미상환 카드대금 처리 용도로 사용된다.

또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을 위한 전월실적 안내가 강화된다. 그간 소비자

들은 전월실적 산정기간과 이용 금액 청구기간이 다른 경우가 많아 계산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금감원은 전월실적을 매월 초 소비자가 홈페이지나 앱, 카드대금청구서 등을 통해 관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해외서비스 수수료 부과제도 개선된다.

그간 카드사들은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한 수수료 산정 시 VISA 등 국제브랜드 수수료(1.0%)를 더한 뒤 해외서비스 수수료 0.2%를 가산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제브랜드 수수료를 제외한 해외 카드결제 금액에 대해서만 수수료가 부과된다.

김태경 상효연계감독국장은 "여신금융협회 등 업계와의 세부 논의를 거쳐 올해 1분기 중 표준약관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HUTURN

## 모스툴

HUTURN

### MS-400

BATTERY CRIMPING TOOL

42mm / 350° 레드회전 / LCD 디스플레이 / 압축력: 150kg / 압축 표시 자동 해제 / 적외선 재열(진단) 가능 / 중량: 7.2kg

### MS-85C

BATTERY CABLE CUTTER

350° 레드회전 / LED 조명 / 16-400mm / 절단범위: 0.85mm / 최대절단력: 60KN / 최대압력: 70MPa / 중량: 6.5kg

수업안내 및 A/S 센터 HUTURN (주) 휴턴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7길 23-6 대우빌딩 4층 / TEL: (02)3471-4931(주) / http://www.huturn.com / FAX: (02)3471-4935

### HPN-400RN

16-400mm / 압력: 13 TON / 중량: 4.8kg (세터미 포함)

### HPN-400A

16-400mm / 압력: 13 TON / 중량: 4.6kg

### CU-56

커팅헤드

### PU-104

전공헤드

모든(압축, 커팅, 전공, 압착, 관작) 작업용 다목적 공구로 해결

## 분전반 제작 전문

소량 주문도 환영  
최고의 품질로  
국내 최저가 판매 도전  
전적 상담 환영  
부품 판매도 가능

(주) 금강기전

(T) 031-8055-7457 (F) 031-8055-7459